

사회비교경향성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

박 지 선†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을 두 하위요인인 능력비교경향성과 의견비교경향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사이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20-50대 남녀 160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우선 남성의 경우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20-50대 남녀 160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우선 남성의 경우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사이에 정서표현 양가성을 투입한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하였는데, 즉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았고,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자기은폐 경향이 높았다. 여성은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더불어,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는데, 즉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할수록 자기은폐 경향이 높았다. 한편, 사회비교경향성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사이에서 남녀 모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주요어 : 자기은폐, 사회비교경향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정서표현 양가성, 능력비교경향성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3063902).

† 교신저자 :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E-mail: jipark@sookmyung.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부정적이라 생각되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이나 감정 등 사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숨기려 하고 자기개방이 낮은 자기은폐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이나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등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으로 고통받으며, 역기능적 대인관계나 불안정 애착 등의 문제와도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김정애, 이민규, 2014; Uysal & Lu, 2011). 이에 따라, 자기은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요인을 다각도로 탐구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자신의 능력이나 신념, 태도를 다른 사람들과의 빈번한 상대적 비교를 통해 가늠하려 하는 성향인 사회비교경향성에 주목하여, 사회비교경향성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을 두 하위요인인 능력비교경향성과 의견비교경향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더불어, 자기은폐와 연관이 높다고 알려진 요인들 가운데 정신병리 및 관계적 문제와 관련이 높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이나희, 이동귀, 2020), 심리적 부적응과 낮은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표현 양가성(이지원, 남숙경, 2016)이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자기은폐와 관련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한 연구가 일부 존재하지만(이지원, 남숙경, 2016; Cramer & Barry, 1999). 과거 자기은폐와 관련된 연구들이 상당 부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박미란, 이지연, 2008). 자기은폐가 심리적 부적응뿐만 아니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관련이 높고, 상담이나 치료적 개입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유현실, 이태희, 2022; 채지은, 박정윤, 2021), 자기은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이들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는 중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이지원, 남숙경, 2016). 더불어, 사회비교경향성(김기쁨, 김유진, 2024)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박지선, 이서진, 2024), 정서표현 양가성(장정주, 김정모, 2008)의 경우에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은폐에 이르는 경로를 남성과 여성 따로 성별을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기은폐에 사회비교경향성이 미치는 영향

자기은폐(self-concealment)는 스스로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우며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생각, 감정, 생활사건 등의 정보를 타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감추려는 경향을 가리킨다(Larson & Chastain, 1990). 이러한 자기은폐 경향이 높은 경우 정서표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정적이라 지각하고 혐오하는 자신의 민감한 사적 정보를 타인에 노출했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거부당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신지은, 이동귀, 2011).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자기은폐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의 도움 등 사회적 지지를 받으려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담 등의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지 않으려 하므로, 심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지며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등 심리적 불편이 심화되고 피상적 관계로 인한 낮은 대인관계 만족도를 초래하며 때로는 이러한 부적응이 신체화된 증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한다(손진희, 유성경, 2004; Hogge & Blankenship, 2020).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다양한 심리적 부적

응을 초래하는 자기은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심리적, 정서적 기제를 연구할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서은주, 권경인, 2018). 이에, 과거 자기은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스스로에 대해 만성적으로 부정적 절감과 공허감을 느끼는 내면화된 수치심(차보영, 이아라, 2020),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다른 사람과 정서를 나누려 하지 않는 정서 억제(김동민, 양대회, 2010),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 타인의 평가와 확인에 의존하는 취약성 자기애(배주영, 허재홍, 2020), 실패를 두려워하고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며 자신의 무능함이나 결함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완벽주의(신지은, 이동귀, 2011; Kawamura & Frost, 2004) 등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은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회비교경향성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간 자기은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 가운데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에 주목하여,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의 관계에서 이들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효과

사회비교 이론은 자신을 평가하려는 욕구가 인간에게 기본적인 것이며, 이때 자신의 능력이나 의견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나 수단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의 능력이나 태도를 인식한다고 설명한다(Festinger, 1954). 이와 같이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어느 정도의 상대적 위치를 갖는지에 관심이 많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등 자신의 능력과 신념, 태도 등을 타인의 그것과 비교하려는 성향을 사회비교경향성(social comparison orientation)이라 한다(Gibbons & Buunk, 1999).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 등 외부의 기준에 과도하게 좌우되기도 하며, 타인의 행동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Gibbons & Buunk, 1999). 그런데 타인과의 빈번한 비교는 때로 불안을 증폭시키고, 높은 우울도나 낮은 자존감과도 관련을 보이는 등 사회비교경향성은 심리적 부적응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기은, 이기학, 2016).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스스로의 평가 기준보다 외부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부정적이라 생각되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 등의 측면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감추려 하는 등 사회비교경향성은 자기은폐 성향과 관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을 변인으로 활용하는 연구 자체가 드물고(김혜원, 이지연, 2016), 특히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사회비교경향성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둘 사이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먼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외부의 인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완벽주의는 사회비교경향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태정, 민경화, 2020; 손은정, 양난미, 2009).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며, 자신의 무능이나 결함을 감추려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은 타인의 행동이나 의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외부 평가 기준에 의존하는 사회비교경향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비교경향성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려우며, 특히 사회비교경향성의 두 하위요인인 능력비교경향성과 의견비교경향성을 나누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드물다. 이와 더불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기은폐와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나희, 이동귀,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사이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은폐 사이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영향

자기제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바람직한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경향을 가리키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지각할 경우 불안해하고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 하는 특성을 말한다(Leary & Kowalski, 1995). 특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바람직한 인상을 남기려는 경향이 극단적으로 강하여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성향을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라 지칭한다(Hewitt et al., 200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크게 세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하정희, 2011; Hewitt et al., 2003).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공적으로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자 하는 특성이다. 즉, 공적인 장면에서 칭찬이나 존경 등 호의적인 평판과 존경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둘째,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실수 등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특성이다. 즉,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불완전한 상황은 회피하려 하며 실수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인상을 심어주기 힘들다는 낮은 효능감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은 자기의 무능함을 말로 드러내지 않고 단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등 불완전함을 감추고 남들에게 비밀로 하며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려 하는 특성을 일컫는다. 이러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근원적으로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심과 부정적절성에 의해 비롯되며, 결함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비판이나 거부를 방지하고 실패를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은 자신의 결함이나 실수 때문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는 등 사회적 평가를 염려하며, 자신의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인

로 보이므로, 부정적이라 생각되는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경향성인 자기은폐와도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이나희, 이동귀, 2020; D'Agata & Holden, 2018).

이와 같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예민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대인관계가 불안정하며 사회적인 장면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Besser et al., 2010). 특히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상대방로부터의 거부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통제적으로 행동하는 등 대인 간 상호작용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Hewitt et al., 2003). 결국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높은 불안과 우울, 섭식 장애, 낮은 자존감 등으로 고통받고, 심리치료를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전문적 도움 추구를 꺼리며 사회적으로 단절을 겪는 등 높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다양한 정신병리와 관계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Sherry et al., 2007).

특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정서적 측면과도 관련이 높은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바람직한 인상을 남기는데 저해가 되고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Hewitt et al., 2011). 국내 연구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장면에서 정서 표현을 제한하는 등, 실제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백수현, 이영순, 2013). 이와 더불어, 정서표현 양가성은 자기은폐와의 관련성 또한 지적되어 왔는데, 이는 자기은폐가 정서적 표현을 억압하려

는 욕구와도 관련이 높은 데서 기인한다(차보영, 이아라,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은폐 사이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영향에 대해서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은 자기의 정서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부터 거부당하거나 당황하는 등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나 위협에 대해 두려워하여 표현을 자제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느낄 때도 이를 억압하고 통제하며 감정표현을 어려워하거나 정서를 표현하고 후회하기도 하며 때로는 실제와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갈등하는 경향을 일컫는다(Brockmeyer et al., 2013). 이러한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고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어려워한다(오충광, 정남운, 2007). 또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며, 공감이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낮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정서를 유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나 경험 자체를 피하려 하며, 문제 발생 시 회피나 부정의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이경희, 김봉환, 2010).

이처럼 정서 표현과 억압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의사소통과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 신경증, 불안, 적대감, 강박 등 심리적 역기능을 초래하며,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과 부적응이 신체화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정주, 김정모,

2008; Butler et al., 2003).

이와 같이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예민함을 보이며, 갈등이나 문제상황이 발생하여도 체면을 유지하려 하는 등 인상관리에 신경을 쓰며 문제를 감추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스트레스가 되는 정보를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기은폐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은수, 2019; Gross & John, 2003). 실제로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은폐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은수, 2019; 차보영, 이아라, 2020).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비교경향성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가? 둘째,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 관계에 있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셋째,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 관계에 있어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넷째,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 관계에 있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가? 본 연구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경우 두 가지 하위요인인 능력비교경향성과 의견비교경향성을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모든 연구문제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남성과 여성 연구 참여

자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각각 80명씩 총 160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나이는 최소 21세부터 최대 59세 사이로, 20-50대까지 연령대별로 균등하게 분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나이의 평균은 39.44, 표준편차는 10.63이었다. 남성 연구 참여자들의 나이는 평균 39.38세로 표준편차는 10.71이었고, 여성 연구 참여자들의 나이는 평균 39.50세로 표준편차는 10.62였다. G*Power(Faul et al., 2007)를 이용하여 사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중간 효과 크기($f^2 = .15$)를 기준으로 할 때 $Power(1 - \beta) > .95$ 로 나타나 적절한 표본 크기가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측정도구 및 절차

자기은폐

자기은폐 경향은 Larson과 Chastain(1990)이 개발한 Self-Concealment Scale(SCS)을 국내에서 박미란과 이지연(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자기은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수치스러운 사건에 대해 듣게 되면 나에 대한 호감이 떨어질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은 밝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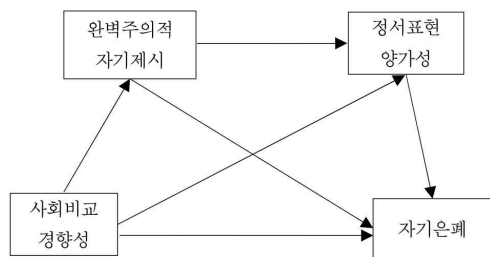


그림 1.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모형

수가 없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박미란과 이지연(2008)에서의 자기은폐 척도 총 15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자기은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10이었다.

사회비교경향성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은 Gibbons와 Buunk(1999)가 개발한 것을 최윤희(2003)가 번안한 INCOM(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하위 요인(능력비교경향성과 의견비교경향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능력비교경향성은 '나는 일을 잘했는지 알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이 한 것과 내가 한 것을 비교한다', '나는 종종 내가 인생에서 달성한 것과 다른 사람이 달성한 것을 비교한다' 등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의견비교경향성은 '나는 종종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얻기 위해 타인과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이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 싶다' 등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윤희(2003)의 연구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내적 합치도는 .802였고, 능력비교경향성의 내적 합치도는 .805, 의견비교경향성의 내적 합치도는 .647로 나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Hewitt 등(2003)이 개발한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하정희(2011)가 재구성하여 타당화시킨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통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내가 나의 일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완벽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1(전혀 아니다)부터 7(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하정희(2011)의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총 19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69이었다.

정서표현 양가성

정서표현 양가성은 King과 Emmons(1990)가 함께 개발한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척도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국내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화시킨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EQ-K)로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표현을 억압하려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전체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처받게 될까 걱정된다', '누군가 나의 신경을 건드릴 때, 느끼는 바를 말하고 싶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

터 5(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14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SPSS 25.0과 PROCESS macro 3.5(Hayes, 2017)를 활용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연구 참여자 성별에 따른 차이를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을 각각 나누어 Pearson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사이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3.5 버전의 model 6의 직렬다중매개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성별에 따른 이중매개효과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남성과 여성 연구 참여자를 나누어 각각 이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성차

먼저 사회비교경향성과 그 두 개의 하위요인(능력비교경향성, 의견비교경향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은폐 등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각각의 변인에서 성별(남성 80명, 여성 80명)에 따른 평균에서의 차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비교경향성과 의견비교경향성에서만 성차가 유의하였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비교경향성과 의견비교경향성 모두 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변인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상관분석 결과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 연구 참여자 각각의 사회비교경향성(능력비교경향성, 의견비교경향성)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은폐 등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남성의 경우, 사회비교경향성은 하위

표 1. 기술통계 및 성별에 따른 차이

척도	전체 M(SD)	남성 M(SD)	여성 M(SD)	t	df	d
사회비교경향성	3.23(0.57)	3.13(0.58)	3.32(0.55)	-2.10*	158	-0.34
능력비교경향성	2.99(0.74)	2.90(0.75)	3.08(0.71)	-1.62	158	-0.25
의견비교경향성	3.51(0.60)	3.42(0.56)	3.60(0.62)	-2.01*	158	-0.3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4.58(0.74)	4.49(0.70)	4.67(0.76)	-1.51	158	-0.25
정서표현 양가성	3.27(0.56)	3.21(0.59)	3.34(0.53)	-1.44	158	-0.23
자기은폐	3.18(0.70)	3.13(0.73)	3.24(0.66)	-1.02	158	-0.16

* $p < .05$

표 2. 남성 및 여성 각각의 변인 간 상관관계

	1	1-1	1-2	2	3	4
1. 사회비교경향성	1	.878***	.751***	.297**	.321**	.131
1-1. 능력비교경향성	.923***	1	.345**	.362**	.391***	.310**
1-2. 의견비교경향성	.783***	.483***	1	.085	.090	-.170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288**	.349**	.092	1	.435***	.489***
3. 정서표현 양가성	.427***	.460***	.228*	.585***	1	.600***
4. 자기은폐	.299**	.350**	.114	.585***	.670***	1

* $p < .05$, ** $p < .01$, *** $p < .001$

남성 : 좌측 하단, 여성 : 우측 상단

변인인 능력비교경향성, 의견비교경향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은폐와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능력비교경향성 역시 의견비교경향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은폐와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그런데 의견비교경향성의 경우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및 자기은폐와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은폐 각각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은 자기은폐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사회비교경향성은 하위변인인 능력비교경향성, 의견비교경향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기은폐와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능력비교경향성은 의견비교경향성,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은폐 모두와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한편, 의견비교경향성의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은폐 모두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는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은폐 각각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표현 양가성은 자기은폐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사이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이중매개모형에서 성별의 상호작용 경로 탐색을 위해 통합모형인 PROCESS macro model 92를 통하여 가능한 모든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나, 모든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Muller et al., 2005). 이에, 남성과 여성 연구 참여자 각각을 나누어 PROCESS macro model 6를 활용하여 이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4 참조).

먼저 남성의 경우(그림 2 참조), 사회비교경향성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미치는 영향($B = .35$,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완

표 3. 남성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분석

남성 - 매개경로	<i>B</i>	<i>SE</i>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사회비교경향성 → 자기은폐	.3792	.1371	.1062	.6522
직접효과 사회비교경향성 → 자기은폐	.0022	.1134	-.2236	.2281
총 간접효과	.3770	.1476	.1050	.6872
사회비교경향성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자기은폐(M1)	.1071	.0698	-.0083	.2662
사회비교경향성 → 정서표현 양가성 → 자기은폐(M2)	.1782	.0803	.0503	.3629
사회비교경향성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정서표현 양가성 → 자기은폐(M3)	.0917	.0559	-.0048	.2208

표 4. 여성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분석

여성 - 매개경로	<i>B</i>	<i>SE</i>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사회비교경향성 → 자기은폐	.1579	.1352	-.1112	.4271
직접효과 사회비교경향성 → 자기은폐	-.1473	.1113	-.3691	.0744
총 간접효과	.3053	.1217	.0952	.5748
사회비교경향성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자기은폐(M1)	.1093	.0659	.0158	.2730
사회비교경향성 → 정서표현 양가성 → 자기은폐(M2)	.1284	.0849	-.0289	.3104
사회비교경향성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정서표현 양가성 → 자기은폐(M3)	.0676	.0371	.0158	.1560

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B = .43, p < .001$) 역시 유의하였으며, 정서표현 양가성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B = .62, p < .001$) 역시 유의하였다.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사이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투입한 단순매개효과(M1)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사이에 정서표현 양가성을 투입한 단순매개효과(M2)는 유의하였는데,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사이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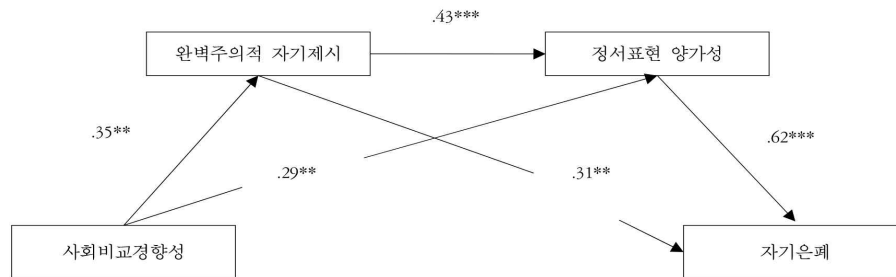


그림 2.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 - 남성

높고,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자기은폐 경향이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을 차례로 투입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중매개효과(M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 여성의 경우(그림 3 참조), 사회비교경향성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미치는 영향($B = .41,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B = .26, p < .001$) 역시 유의하였으며, 정서표현 양가성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B = .64, p < .001$) 역시 유의하였다.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투입한 단순매개효과(M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

은폐 간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할수록 자기은폐 경향이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에 정서표현 양가성을 투입한 단순매개효과(M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을 차례로 투입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중매개효과(M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비교경향성이 강할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할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으며,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자기은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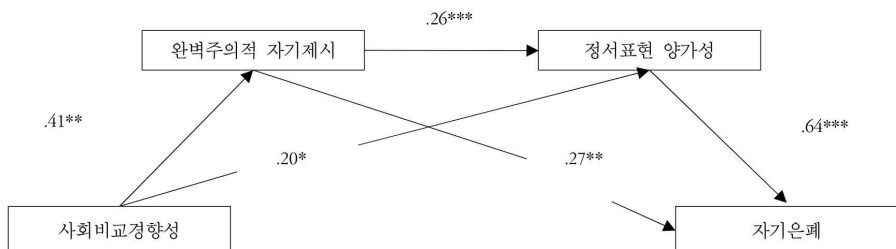


그림 3.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 - 여성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

이번에는 사회비교경향성의 하위요인(능력비교경향성, 의견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와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하위요인 중 의견비교경향성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아 이중매개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성별에 따라 표 5, 6에 제시하였다. 이때, 의견비교경향성을 공변량으로 모형에 투입하여 능력비교경향성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남성의 경우(그림 4 참조), 능력비교경향성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미치는 영향($B = .37,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의

견비교경향성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미치는 영향($B = -.12, p = .41$)은 유의하지 않았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B = .41, p < .001$) 역시 유의하였으며, 정서표현 양가성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B = .61, p < .001$) 역시 유의하였다.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투입한 단순매개효과(M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능력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할수록 자기은폐경향이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더불어,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에 정서표현 양가성을 투입한 단순매개효과(M2)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에 정서표

표 5. 남성의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분석

남성- 매개경로	<i>B</i>	<i>SE</i>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능력비교경향성 → 자기은폐	.3758	.1186	.1397	.6119
직접효과				
능력비교경향성 → 자기은폐	.0468	.1001	-.1525	.2461
총 간접효과	.3290	.0967	.1557	.5324
능력비교경향성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자기은폐(M1)	.1099	.0558	.0249	.2386
능력비교경향성 → 정서표현 양가성 → 자기은폐(M2)	.1260	.0587	.0257	.2568
능력비교경향성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정서표현 양가성 → 자기은폐(M3)	.0931	.0402	.0293	.1860

표 6. 여성의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분석

여성- 매개경로	<i>B</i>	<i>SE</i>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능력비교경향성 → 자기은폐	.3904	.1026	.1861	.5947
직접효과 능력비교경향성 → 자기은폐	.1212	.0911	-.0602	.3027
총 간접효과	.2692	.0734	.1391	.4256
능력비교경향성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자기은폐(M1)	.0939	.0474	.0168	.2036
능력비교경향성 → 정서표현 양가성 → 자기은폐(M2)	.1209	.0588	.0186	.2494
능력비교경향성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정서표현 양가성 → 자기은폐(M3)	.0543	.0266	.0134	.1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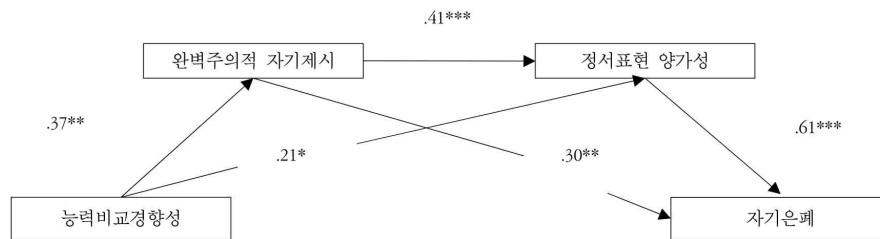


그림 4.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 - 남성

현 양가성이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능력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고,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자기은폐 경향이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번에는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을 차례로 투입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중매개효과(M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능력비교경향성이 강할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하고, 강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은 높은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이어져 높은 자기은폐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 여성의 경우(그림 5 참조)에도, 능력비교경향성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미치는 영향($B = .41,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의견비교경향성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미치는 영향($B = -.06, p = .69$)은 유의하지 않았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B = .23, p < .01$) 역시 유의하였으며, 정서표현 양가성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B = .58, p < .001$) 역시 유의하였다.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투입한 단순매개효과(M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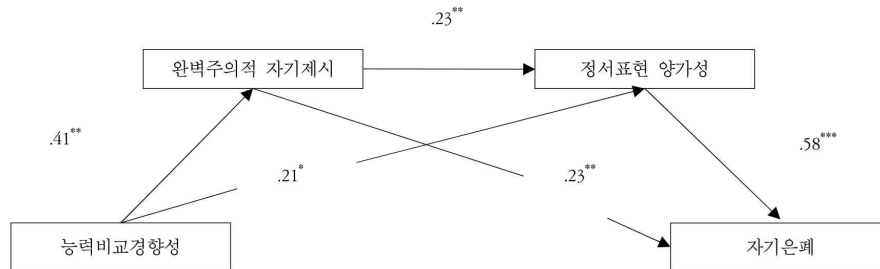


그림 5.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 - 여성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더불어,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에 정서표현 양가성을 투입한 단순매개효과(M2)도 유의하였는데,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더불어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을 차례로 투입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중매개효과(M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능력비교경향성이 강할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할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높은 자기은폐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사회비교경향성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둘 사이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이 이중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사회비교경향성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성

의 경우 사회비교경향성은 자기은폐와 정적 상관관이 유의하였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한편, 사회비교경향성의 두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녀 모두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의 상관관은 유의하였으나, 의견비교경향성은 남녀 모두 자기은폐와의 상관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즉, 능력비교경향성이 강할수록 높은 자기은폐 성향을 보이며,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자기은폐 성향도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사이의 관계 유의도에서 능력비교경향성이 관건이라는 것을 시사하며, 사회비교경향성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이한울, 박지선, 2022).

두 번째 연구문제인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 관계에 있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우에만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할수록 자기은폐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며 외부 기준에 과도하게 좌우되는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평가를 염려하며 타인에게 공적인 장

면에서 결함이나 실수를 감추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하고, 이는 결국 남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자 부정적이라 생각되는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높은 자기은폐 성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에도 이 변인들 사이 관계를 살펴볼 때 성별에 따라 각각 나누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하위요인인 능력비교경향성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자기은폐와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높은 자기은폐로 이어졌다. 능력비교경향성은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견비교경향성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각각 연관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Gibbons & Buunk, 1999), 다른 사람에게 능력 있고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의견보다는 능력과 더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에만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남성은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고,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자기은폐 성향이 강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빈번하게 자신을 비교하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며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자기의 정서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부터의 거부 등 부정적인 결과를 두려

워하여 표현을 억제하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강하고, 이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높은 자기은폐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높은 자기은폐 경향을 보이는 남성의 경우 정서표현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낮은 기대로 타인과의 감정적 공유를 주저하는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네 번째 연구문제인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우만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여성의 경우 사회비교경향성이 강할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할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자기은폐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간에는 성별을 막론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남녀 모두 능력비교경향성이 강할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많이 하고, 이는 높은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자기은폐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능력비교경향성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은폐 간에 일관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보인 반면, 의견비교경향성은 이러한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자기은폐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자기은폐 경향이 높을수록 상담이나 치료 등 전문적인 도움 추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진희, 유성경, 2004; 이지원, 남숙경, 2016), 따라서, 자기은폐에 미치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영향을 보여준 본 연구 결과는, 자기은폐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서를 지각하고 표현하는 정서적 측면의 개선에 집중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경우 사회적 장면에서 타인과 자신을 만성적으로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기은, 이기학, 2016).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빈번한 비교 속에서 불안이 심화되기도 하므로(White et al., 2006),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나 인정에 의존하여 확인하려는 경향을 스스로 지각하고 이로부터 벗어나 보다 건강하고 건설적인 대처를 통해 스스로의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김혜원, 이지연, 2016). 특히 능력비교경향성과 자기은폐 사이에 일관되게 연관성이 드러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능력비교경향성이 높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외부의 평가나 반응에 민감한 경우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Bogart et al., 2004).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연구 참여자가 20대부터 50대까지 비교적 넓은 연령대에 걸쳐 고루 분포해 있으나, 그 수가 160명으로 상당히 적으므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차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주요 변인들 가운데 사회비교경향성과 의견비교경향성에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정서표현 양가성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

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거나(장정주, 김정모, 2008)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이지원, 남숙경, 2016; King & Emmons, 1990) 성차가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하는 등(최해연, 민경환, 2007)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고, 자기은폐 성향 또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나거나(Cramer & Barry, 1999)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등(이지원, 남숙경, 2016)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러한 주요 변인들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또한 만약 차이가 유의할 경우 변인들 간의 관계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면밀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를 다루고 있음에도 측정변수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구조방정식 등 잠재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모형을 활용하여 변인들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자기은폐는 우울 등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고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성이 높은 동시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등 전문적 도움 추구를 저해하며 심리치료 과정에서도 상담자와의 협력적인 치료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이나희, 이동귀, 2020; Vogel & Armstrong,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이나 감정적 공유의 결과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기대 및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대처하여(Wei et al., 2005), 다양한 사회적 장면과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며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과 정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참고문헌

- 김기쁨, 김유진 (2024). 사회비교경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와 자기격려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67(1), 115-136.
- 김동민, 양대회 (2010).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미치는 자기은폐성향의 영향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28(2), 95-108.
- 김정애, 이민규 (2014). 자기은폐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심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 심리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063-1086.
- 김태정, 민경화 (2020).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 *취업진로연구*, 10(1), 31-53.
- 김혜원, 이지연 (2016). 여고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사회비교경향성, 신체비교, 신체불만족의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과학연구*, 42(2), 253-276.
- 박미란, 이지연 (2008). 자기은폐 척도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9(4), 1547-1565.
- 박지선, 이서진. (2024). 전위공격성 및 그 하위요인에 미치는 취약성 자기애의 영향-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후반추사고의 순차매개효과. *범죄수사학연구*, 10(2), 121-145.
- 배주영, 허재홍 (2020). 자기애적 취약성,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은폐, 그리고 우울의 관계. *인문사회* 21, 11(6), 757-771.
- 백수현, 이영순 (201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1), 385-400.
- 서은주, 권경인 (2018). 병리적 자기애가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적 지지에 대한 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교육연구논총*, 39(4), 1-29.
- 손은정, 양난미 (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성형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신체왜곡의 매개 역할. *상담학연구*, 10(2), 1245-1258.
- 손진희, 유성경 (2004). 내담자의 자기은폐 (self-concealment) 수준에 따른 상담회기, 작업동맹 평가 및 상담자-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초심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327-345.
- 신지은, 이동귀 (2011). 고등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 자기은폐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2(2), 55-79.
- 오충광, 정남운 (2007). 정서표현갈등과 상담자 지각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1), 115-136.
- 유기은, 이기학 (2016).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 진로목표 불일치와 자기격려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3), 407-429.
- 유현실, 이태희 (2022). 잠재적 내담자의 자기은폐 및 자기개방과 상담 이용 의도의 관계에 대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매개효과: 대면 및 비대면 상담 형태 선호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4), 1431-1454.
- 이경희, 김봉환 (2010).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조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명

- 확성, 정서강도 및 정서주의의 군집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69-384.
- 이나희, 이동귀 (2020).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몰입 및 자기은폐가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347-1369.
- 이은수 (2019).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 관계: 정서표현의 양가성과 자기은폐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8(3), 91-109.
- 이지원, 남숙경 (2016). 성별에 따른 정서표현 양가성이 전문적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방과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교육방법연구, 28(4), 721-741.
- 이한울, 박지선 (2022). 특권의식이 데이트 관계에서의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 지배경향성과 사회비교경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4), 555-575.
- 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적 자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97-714.
- 차보영, 이아라 (2020).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폐의 관계: 자기비난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1(4), 69-88.
- 채지은, 박정윤 (2021). 초기 성인기의 자기은폐,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3), 305-323.
- 최윤희 (2003). 스트레스, 통제소재 및 사회비교 경향성이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 성격, 21(4), 71-89.
- 하정희 (2011).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의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12(4), 1211-1230.
- Besser, A., Flett, G. L., & Hewitt, P. L. (2010).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and trait perfectionism i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0*(8), 2121-2154.
- Bogart, L. M., Benotsch, E. G., & Pavlovic, J. D. P. (2004). Feeling superior but threatened: The relation of narcissism to social comparis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6*(1), 35-44.
- Brockmeyer, T., Holtforth, M. G., Krieger, T., Altenstein, D., Doerig, N., Friederich, H. C., & Bents, H. (2013).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in major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7), 862-864.
- Butler, E. A., Egloff, B., Wilhelm, F. H., Smith, N. C., Erickson, E. A., & Gross, J. J. (2003). The social consequences of expressive suppression. *Emotion, 3*(1), 48-67.
- Cramer, K. M., & Barry, J. E. (1999).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elf-concealment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4), 629-637.
- D'Agata, M. T., & Holden, R. R. (2018). Self-concealment and perfectionistic

- self-presentation in concealment of psychache and suicide ide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5, 56-61.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129-142.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ewitt, P. L., Blasberg, J. S., Flett, G. L., Besser, A., Sherry, S. B., Caelian, C., Papsdorf, M., Cassels, T. G., & Birch, S. (2011).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Junior Form. *Psychological Assessment*, 23(1), 125-142.
- Hewitt, P. L., Flett, G. L., Sherry, S. B., Habke, M., Parkin, M., Lam, R. W., & Stein, M. B.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303-1325.
- Hogge, I., & Blankenship, P. (2020). Self concealment and suicidality: Mediating roles of unmet interpersonal needs and attitudes toward help seek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6(10), 1893-1903.
- Kawamura, K. Y., & Frost, R. O. (2004). Self-concealment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 183-191.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Larson, D. G., & Chastain, R. L. (1990).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4), 439-455.
- Leary, M. R., & Kowalski, R. M. (1995).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94-112). The Guilford Press.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863.
- Sherry, S. B., Hewitt, P. L., Flett, G. L., Lee-Baggle, D. L., & Hall, P. A. (2007). Trait perfectionism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personality 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3), 477-490.

- Uysal, A., & Lu, Q. (2011). Is self-concealment associated with acute and chronic pain?. *Health Psychology, 30*(5), 606-614.
- Vogel, D. L., & Armstrong, P. I. (2010). Self concealment and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for psychological, academic, and career issu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8*(4), 387-396.
- Wei, M., Vogel, D. L., Ku, T. 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4-24.
- White, J. B., Langer, E. J., Yariv, L., & Welch, J. C. (2006). Frequent social comparisons and destructive emotions and behaviors: The dark side of social comparison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3*, 36-44.
- 논문 투고일 : 2024. 12. 18
1 차 심사일 : 2025. 01. 31
게재 확정일 : 2025. 02. 17

The Effect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on Self-Concealment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on self-concealment using two subscales (ability and opinion) and examined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self-concealment by gender. Based on the data from 80 males and 80 females in their 20~50s, the double mediation effect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etween the relationship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self-concealment were not significant for men. But,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self-concealment. The double mediation effect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self-concealment were significant for women. In addi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self-concealment. Higher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predicte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predicted self-concealment. For both men and women, the double mediation effect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etween ability comparison orientation and self-concealment were significant.

Key words : self-concealment,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bility comparison orientation